

생태마을 계획을 위한 지역의 자연·문화활성화 전략

Strategy Revitalize Local Nature and Culture for Eco-Village Planning

김 선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I.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대상지인 여주군 강천면 부평1리는 고령화, 저소득, 마을의 낮은 인지도에 의해 군내에서는 가장 낙후된 마을로 환경협오시설의 하나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유치하여 그 보상비로서 마을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현재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근 마을들이 환경협오시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심각한 갈등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마을의 갈등해소와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생태마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연구에서 생태마을계획은 주거환경개선, 공동시설, 주산업 및 생산물,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지역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이 중점분야를 이루고 있으나, 본 대상지는 청주한씨의 종중소유 토지가 많아 마을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자연·문화자원 활성화에 의한 생태마을계획을 통하여 농촌마을의 고령화, 소득불균형(저소득) 해소 및 지역커뮤니티의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지역자연자원 조사 및 분석

- ① 식물상조사, ②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조사
- ③ 야생조류조사: 출현종 및 우점도, 종다양도 등을 분석

2) 지역문화자원의 조사 및 분석

白井의 분류체계를 참고로 산업자원, 역사자원, 생활자원, 예술자원, 사회자원, 관광·레크레이션자원, 유무형자원, 기타자원의 8개로 분류하여 조사

3) 생태마을 조성체계 정립

① 문헌조사

② 주민대상 설문조사: 주거환경, 생활환경, 산업구조, 공공사업 및 주민참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원관리와 자원이용에 대한 인식

Ⅲ. 결과 및 고찰

1)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조사

여주군 강천면 부평1리는 산림 76.6%, 휴경지를 포함한 경작지 14.1%, 주택과 도로를 포함한 도시화지역 2.0%로 산림의 비율 매우 높은 농촌마을로 식생은 소나무와 참나무림(졸참, 굴참, 신갈 등), 일본잎갈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야생조류조사

야생조류는 총 21종 644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관목성상의 덤불속에 사는 붉은머리오목눈이(50.5%)의 출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쭉새(11.3%)와 노랑턱멧새(9.2%) 등 경작지와 개활지 주변에서 서식하는 멧새류의 출현율이 높았다.

3) 지역특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산업자원으로 쌀과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고추, 양파 등의 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나, 특산물이 될 만큼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작황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부평리는 1차산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산업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산물과 버섯류의 재배를 제외하면 자연에서 채취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고, 가공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술자원(전통놀이, 음악, 미술, 종합)은 없으며, 생활자원(쇼팽, 문화, 편익, 외식 등)은 빈약하여 파악된 자원이 없었으며, 역사자원(역사물, 풍토물, 주거지)으로는 한백겸의 묘비가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사회자원(교육, 도로, 통신, 복지, 운송 등)에 있어서도 고령화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는 마을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마을 내에 학교는 없으며, 버스는 하루에 몇 편으로 한정되어 대중교통수단으로 마을을 왕래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관광·레크레이션자원에는 레프팅과 천문관측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장, 골프장, 온천이 있으며, 유·무형자원으로 굿놀이와 샷갯봉의 전설이 파악이 되었다.

4)주거환경 및 생태마을정비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총 35가구 중 26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마을회관에서 설문을 할 경우는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사람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옥보유형태에서 본인이 가옥을 소유한 가구는 9가구였으며, 현재의 가옥구조가 너무 불편하여 생활하기 곤란하고 응답한 응답자는 11.5%(3명), 그러저럭 괜찮다 61.5%(16명)였다.

그러나, 가옥의 구조를 편리하게 수리한 예를 들어 확인 설문을 할 경우, 대부분이 현재의 거주가옥이 불편하다고 대답함으로써 편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계속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옥의 구조가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교통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를 포함한 25명(96.2%)이 매우 불편하다고 대답하였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7세대만이 생활환경개선(가옥수리)에 사용하고, 65.4%(17명)가 농기구의 구입과 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마을의 인심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1.5%(16명),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3.1%(6명)였다.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80.7%(21명)으로 사실상 부평리의 경우는 생태마을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계획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응답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소득의 문제로 92.4%(24명)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을 원하는 문제로 파악이 되었다.

관심있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23.1%(6명) 공동축산(소기르기)으로 응답하였고, 50%(13명)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소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사업을 하여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는 응답자가 다수이며,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경험이 있는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가마섬유원지가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한다는 응답자가 53.8%(14명)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가마섬유원지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태마을의 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분야는 35세대 중 9세대만이 본인소유의 토지로 나머지 세대는 본인소유가 아니므로 주거환경개선에의 의지가 약하였다. 따라서, 마을차원의 주거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회의, 잔치,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마을주민의 커뮤니티의 핵심이 되는 장소로 생태마을계획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의 주요 생산물은 쌀과 고구마이며, 김장철에는 배추, 무도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70%이상이 타인의 소유이고, 작물의 판로가 불안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수확한 생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IV. 지역의 자연·문화자원 활성화 전략

여주군은 다양한 관광·유적지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연간 내·외국인 300여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이지만, 부평리는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거의 없는 소외지역으로 주민소유의 토지, 자본, 활동가능인구가 거의 없는 마을 상황으로 볼 때, 토지와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고령자의 활용이 가능한 관광사업이 실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생태마을계획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커뮤니티의 회복과 소득창출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민 편의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잔치,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에 공동목욕시설의 설치하고, 고령인구를 적극적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을 센터로 Person&Person Matching Company(인력은행의 형태)를 설립하여 사업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소득창출방안으로 국도(42호)에서 마을집입부 주변에 소규모 휴게공간 및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고, 여주쌀밥정식과 같은 잠재력 있는 특산품을 개발하는 한편, 연간 6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의 연계사업으로 경작프로그램 및 자연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굿놀이, 시골장터, 마을잔치 등의 이벤트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소유의 거주지에 살고 있는 9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제형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체제형 프로그램에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